

[P4-2]

학령 전 아동의 빈혈 영양상태와 사회적 기술 및 행동문제에 관한 연구

유유영, 신경옥, 박현서[§]

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

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 전 아동의 빈혈 영양상태가 사회적 기술 및 행동문제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. 2002년 10월~12월, 의정부시 유아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약 441명의 학령 전 아동(만 3~6세)을 대상으로 교사의 도움을 받아 사회적 기술 및 행동문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, 아동 325명의 혈액을 채취하여 빈혈정도를 측정하였다.

빈혈을 판정하는 요인들의 기준치보다 낮은 아동들의 빈도를 보면 hemoglobin(<12g/dL) 72명(22.2%), TIBC(>400ug/dL)276명(84.8%), Fe(<60ug/dL)33명(10.2%), ferritin (<20ng/mL) 106명(32.6%), transferrin Fe saturation (<15%) 44명(13.5%)이었다. 사회적 기술인 협력성(48점 만점), 상호작용(44점 만점), 독립성(44점 만점)의 평균은 각각 38.2점, 32.3점, 33.7점이었으며, 평균 보다 낮은 성적을 보인 아동 빈도는 약 50~53%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. 아동의 행동 문제인 자기중심성(44점 만점), 행동과다(32점 만점), 공격성(32점 만점)의 평균은 각각 20.2점, 14.8점, 13.7점으로써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 아동의 빈도는 44~49%, 위축(28점 만점), 불안(32점 만점)의 평균은 각각 12.8점, 12.9점으로, 53~58%가 평균보다 높았으며 정서적으로 위축 및 불안 요소가 있는 아동이 더 높았다. 빈혈 아동에서는 정상아동에 비해서 협력성과 TIBC 값은 유의적인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($r=0.154$, $p<0.005$). Hb <12g/dL인 아동에서 상호작용은 전체아동의 평균 점수보다 낮게, 위축과 불안은 평균보다 높은 아동의 비율이 더 높았다. TIBC >400ug/dL, ferritin <20ng/mL을 기준으로 관찰하였을 때의 아동은 협력성, 상호작용, 독립성 모두 평균보다 낮은 아동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, 사회적 기술 외에 위축이 평균보다 높은 아동의 비율이 높았다. Fe은 <60ug/dL 보다 낮은 아동에서는 자기중심성, 위축 및 불안의 성향이 평균보다 높은 아동의 비율이 높았다. Transferrin saturation <15%인 아동에서는 위축과 불안의 점수가 평균보다 높았다. 즉, 빈혈 아동에서는 위축과 불안 요소가 평균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.

전체적으로 빈혈 영양상태가 사회적 기술과 행동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사료된다. 또한 빈혈 판정 요인에 따라서 학령전 아동에서 10~33%가 철분 결핍성 빈혈이 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으므로, 아동의 편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영양교육과 균형잡힌 식습관과 식생활을 지도하여 편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새로운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.